

# 성의 신성성을 일깨우는 길

최 근 덕 |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 1

강의실 복도에서 스쳐지나 가던 한 여학생이 알은체를 하며 인사를 한다. 얼핏 보기에 입고 있는 바지가 너무 짧다. 어느 과 몇 학년 학생인지 분간은 가지 않지만 한 마디 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

“애야, 바지가 너무 짧구나.”

그러자 즉각 대답이 날아온다.

“교수님, 섹시하지 않아요?”

어안이병병해진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다. 그리고 보니 며칠 전 본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꼬며 “아버님, 저 섹시하죠?” 하고 묻는 장면이다.

그 때 그 시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기억이 없다.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렸는지, 아니면 섹시한 며느리의 몸매가 대견스러워 흐뭇한 표정으로 감상을 했는지 눈여겨보질 못했다. 하도 황당(?)해서 TV를 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이 어린 여성 탤런트가 오락 프로 같은데 나와서 “나 섹시하죠?” 하는 것은 예사이고 사회자가 치켜세우느라 “참 섹시하네요.” 하고 칭찬(?)하는 것도 예사가 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교수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예사로운 세상이 된 것이다.

사실 이런 걸 문제삼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내

심 비웃을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인 젊은 층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이른바 기성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도 “골동품 같은 소리하네.” 하며 혀를 찰는지 모른다. 이래저래 골동품이 살아가기에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 됐다. 교수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 빈 자리를 찾다 보니 정면에 젊은 여성이 아슬아슬한 자세로 앉아 있다. 허벅지가 흰히 보인다. 돌아서면서 “바지를 입은 거야? 차라리 벗고 있지!”라고 한 마디 뱉으며 나오는데 입구에 앉아 있던 조교인지 사환인지가 년지시 일깨워 준다.

“교수님, 저 분은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강사는 그래 벗고 있어도 괜찮나?”

## 2

몇 년 전부터 부쩍 「성희롱」, 「성폭력」이란 말이 화제에 자주 오르고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언론 매체에서도 심심찮게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가해자인 남성을 응징하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경고를 주려는 뜻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징조이기도 하고, 여성의 위엄을 존중해 주려는 배려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일이다. 어쩌면 역사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학원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또는 추행이 사직 당국이나 언론에 고발된 사례가 심심찮게 세간에 알려

지기도 한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의 나이 지긋한 교사가 저학년 어린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왔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그 교사는 정신을 앓는 큰 병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제에 올릴 일이 못 된다. 어찌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 교육 당국이 정기적으로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진단해야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교육자인 학생이 육체적으로 성숙해 이른바 사춘기에 해당되고 성에 대해 민감한 시기여서 쉽게 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둘째는 성개방의 풍조에 따라 TV를 비롯해서 영상물 또는 원색적인 출판물에 의해 성의식이 고조되어 있으며, 셋째는 남녀 평등 사상·여성 지위 향상 등의 추이에 힘입어 피해 사실을 쉽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자는 쌍방 모두 남녀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녀가 다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의 유형도 ① 교사와 제자 사이 ② 학생과 학생 사이 ③ 교사와 교사 사이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①의 경우에 있다. ②나 ③은 윤리적으로 승통이 있지만 ①은 사회 통념상 도덕적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대학의 성문화에 대한 남성의 입장과 바람직한 역할 그리고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가. 대학에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나라 대학에는 그 나름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없다. 청년 문화라 해도 좋고 대학 문화라 해도 좋다. 그런 문화가 이렇다는 말이

다. 광복 후 어쩔 수 없이 밀려든 동서 냉전의 어둠이 부딪히는 투쟁장이 된 적이 있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반체제의 외침 속에 대학 구내를 온통 최루탄 가스 냄새로 메웠는가 하면, 주사파니 뭐니 하고 정치 구호로 날을 세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을 삭여 왔으니 어느 여기에 대학 문화며 청년 문화를 운위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현실 정치로 해서 들뜨게 되는 정치 열병이 대학의 지성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려는가를 그사이 체험으로 실감해 왔다. 철학도 문학도 미술도 음악도 오직 정치 구호의 뒷받침으로 전략해 오지 않았는가.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는 축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교수들조차 휘말려들었으니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문화가 있었다면 대학 밖에서 배워 오는 외국으로부터의 직수입품인 퇴폐적이고 상업적인 몸짓이 있었을 뿐이었다. 특히 성에 관해서는 서구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개방 풍조에 가슴을 열어 짓히고 있었을 뿐이었다. 거기에 어떠한 철학이나 성찰을 용해시킬 겨를은 없었다. 철학이 없는 육체는 미상불 허탄(虛誕)해질 수밖에 없다. 지향없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현기증으로 어지럼병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문화 실태다. 우선 대학에서부터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나. 대학의 성문화 정착에 다음 세 가지가

#####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성의식(性意識)이 고려되어야 한다.

옛것 중에서 아름다움을 취해 바탕으로 삼아야 새로 '태어나는 것'이 생소하지 않아 공감대를 이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문화를 "남성 위주" 또는 "여성 친시"로 낙인찍는다. 그런 측면이 없는 바가 아니다. 알고 보면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역사 전개에 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유독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점'을 찾아내어 새 것에 접목시키자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성 평등 의식'이 강했다.

① 혼인 제도(婚俗)를 보면 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등 북방 사회는 말할 것 없고, 남방의 삼한 사회도 남귀 여가 즉,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 가는 혼인 풍속(招婿婚)이었다. 이 혼속은 조선조 말기까지 끈질기게 지켜져, 주자 가례도 혼인 제도만은 바꿀 수가 없었다. ② 유산 상속 제도도 남녀 균등 상속으로 굳혀져 있었고, ③ 주부가 가정의 경제권 즉 살림권을 쥐고 있었으며, ④ 어머니의 권위가 자녀 교육에 크게 작용했고, 따라서 경모(敬母) 사상이 상류층일수록 강했다.

대략 들어 본 것이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여성 천대나 여성 학대의 전통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다만 조선조 중기 이후에 유교가 유연성을 잃고 이념적으로 경색화되면서 여성 차별이 심화되어 갔지만 알고 보면 유교의 뜻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그 무렵부터 유교가 본모습을 잃고 정쟁이며 당쟁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규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령 예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을 금과 옥조로 삼아 어릴 적부터 남녀 구별을 철저히 해서 한 방에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서로 얼굴을 맞대지 못하게 하는 내외법을 창안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해석 자체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석(席)의 뜻은 '자리'가 분명하지만 중국의 풍속으로 방안에 퍼는 "네 사람씩 앉는 자리"를 뜻한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비좁게 앉는 그 자리에 남녀가 살을 맞대며 앉지 말라는 경계다. 이런 류의 잘못된 곳곳에 있다. 오류에서 부부 유별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다."는 뜻인데 "분별"을 "차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별(別)이라는 글자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육체와 역할에서 분별이

있다는 뜻이다. 논어에 나오는 소인 여자에 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우선 소인이 지니고 있는 뜻도 두 가지다. 하나는 벼슬을 하지 않는 일반 백성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덕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 대목에서는 소인과 여자를 따로 떼어 해석해야 된다. 어쨌거나 여자는 "존중하면서도 멀리하라.(敬而遠之)"는 뜻이다. 남자와 여자는 가깝게 있으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부터 2천 5백여 년 전의 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곡을 찌른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성의 신성성(神聖性)이 재고되어야 한다.

흔히 성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름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할 수 없이 신성한 것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름답지만 한 것이라면 그저 감상하고 소유하는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워 욕망이 끼여들 수 있고 쟁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신성에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 즉, 음과 양의 활동에서 창조된다. 역(易)에서는 이를 "음과 양이 서로 어울려 만물이 태어난다.(陰陽相摩 萬物化成)"고 표현한다. 상마(相摩)니 상탕(相蕩=天地相蕩)이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교를 뜻한다. 성교(性交)의 교(交)도, 상마(相摩), 상탕(相蕩)의 상(相)도 모두가 '서로'라는 뜻으로 성에는 '상대'가 있음을 나타낸다. 상대와 단 둘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하고 그리고 신성성을 띠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 심지어 크기가 1mm도 되지 않는 벌레라 할지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에 있어서야... 이 귀중한 생명을 창조하는 성을 가볍게 여겨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개방이라 하면 곧 성을 미구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성의 자유라 하면 취사 선택 없

이 어디서 누구와도 성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는가 하면, 거리낌없이 성을 입에 올린다. 얼마 전 어느 신문의 방송평을 보니까 성에 대한 프로를 방영하고 있는 TV에서 사회 보는 전문 연예인은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쫄쫄메는 시늉인데, 정작 아마추어로 출연한 주부들이 성교 회수며, 테크닉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서 프로가 생기를 띠었다고 논평한 것을 보고는 고소를 금치 못했다.

아마추어 주부가 TV에 나와서 남편과 1주일에 몇 번 성교를 한다고 거리낌없이 공표하고 성교 기교를 설명하는 것이 성의 개방이고 성의 자유인가. 요즘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답시고 남녀 성기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가 하면, 성교 방법도 그림으로 보여 준다고 한다. 어느 초등학교 교감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교재를 직접 만들었느냐고 물었더니, 시 교육청에서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자랑을 들으면서 문득 오래 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가 생각났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구(區)는 빈민이 많이 사는 곳인데 깡패, 건달패, 창녀들이 들끓어 청소년 교육에 문제가 많았다. 20세 미만의 처녀가 1년에 3만 명 가량이 임신 중절을 했다. 이를 걱정한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했다. 면밀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시청각 교육용 자료도 만들어 일 년 내내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듬해 임신 중절을 한 처녀가 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성교육에 있어서 반추해 볼 전례라고 생각한다.

유교 경전인 대학이란 책에 “아이 낳아 기르는 법을 배워 시집 가는 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는 구절이 있지만, 여자가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것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서 자연스레 된다는 뜻인 것 같다.

근간에 와서는 컴퓨터가 보급되어 초등학교 어린

이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컴퓨터에 매달려 있으니 자연 인터넷이나 사이버 세계에서 성과 만나게 되고 음란 사이트도 들어가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는 현실이다. 초등학생이 그런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할 테지만 컴퓨터 조작은 나이에 관계가 없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쉽게 배우고 잘 친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제 성은 발가벗고 우리들 눈앞에 서 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은밀하다거나 신비스럽다거나 그런 감정이나 시각은 날아간지 오래다. 어린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기회도 자유롭게 주어져 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신성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성이 책에도 영화에도 텔레비전에도 그림에도 컴퓨터에도 거리에에도 교실에도 집안에도 도처에 널려 있으니, 귀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으며 은밀하지도 않다. 그러니 신성성을 반드시 일깨워 줘야 한다. 생명을 걸고 신성성은 유지해야 한다. 생명창조의 원천이 아닌가. 성문화의 정착에도 성교육에도 신성성이 담겨져야 한다. 성의 신성성에 생각이 미칠 수 있다면 그 혼한 성희롱도 성폭행도 감히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성은 조화다. 조화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조화란 무엇인가. 잘 어울리는 것이다.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으며, 어긋남이 없이 둘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역(易)에서는 음양 상보(陰陽相補), 음양 상인(陰陽相因), 음양 상생(陰陽相生)이라 했다. 음양 상보란 음양 곧 남녀가 모자람을 보전해 주면서 서로 도운다는 말이고, 음양 상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인을 제공해 성과를 이룬다는 뜻이며, 음양 상생은 남자와 여자가 맺어져 생명을 잉태함을 말한다. 하늘(太陽)이 생명의 원인을 주면, 땅이 받아 잉태하고 생산하듯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원인을 주고 여자는 품어 싹 틔운다. 음양의 조

화 없이 우주 만물이 화성(化戔)할 수 없듯이 남녀성의 조화 없이 인간의 생명 창조는 있을 수 없다. 요즘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을 복제한다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과학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면 인류는 조만간 절멸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생명 창조 작업이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성행위는 조화로움을 요구한다. 성행위는 둘의 일이기 때문이다. 둘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뜻이 합해지지 않았다면 성희롱, 성폭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영성(靈性)을 지닌 동물이라 선험적(先驗的) 감성(感性)으로 상대방 감정의 기복(起伏)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은 지혜와 우둔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조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 대학 구성원의 올바른 성의식을 위한 제언

대학은 대별해서 학생·교수로 구성된다.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지만 연령으로 보면 20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는 인생의 황금기이고, 교수는 학생보다는 한 세대 앞서는 장년·노년기에 처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학생과 세대 차이가 없는 연령층도 있다. 연령 차이가 어떠한 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입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하거늘 근자에 심심찮게 성희롱 사례가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더러는 흑백을 가리느라 사직 당국에 제소도 하는 모양이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으로 보면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로 지식과 함께 인생을 가르쳐 주는 분인데 고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은 사랑스런 자녀에 비길 수 있는데 고발을 당해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한다. 그야 말로 추문(醜聞)이요, 추태(醜態)다. 어쩌다 우리 대학이, 우리 교육이 여기까

지 왔는지 한심한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절대 다수의 학생, 교수가 건전한 학교 생활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이 이르면 마음 든든한 바도 없지 않다.

여태까지 드러난 예로는 대개 젊은 교수와 여학생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상황에서 따라서는 오히려 착각에서 벗어진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부에 알려진 전말(顛末) 외에 또 다른 내막이 혹여 있지 않을까. 어찌 제자가 스승을 그런 추문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그런 추태를 부릴 수 있던 말인가. 옛말에 “오랏나무 아래서 잤을 바로잡지 않고, 참외밭에서 신 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季下不整冠 瓜田不納履]”고 했다.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성숙한 여성이다. 더구나 성에 민감한 시기라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공부와 연관되지 않는 일로 여학생을 연구실에 불러 놓고 노닥거리는 일, 저녁 늦도록 단 둘이 있는 일, 단 둘이 술을 마시는 일, 유흥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일 등등 모두 참외밭에서 신 끈을 고쳐 매는 일에 해당된다. 남성 교수는 여제자를 제자이면서 여성으로 깎듯한 대우를 해 줘야 하고, 여성 교수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을 남성으로서 배려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여학생은 남성 교수에게 스승인 동시에 남성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그만 틈도 보이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 3

조선 시대 어느 큰 학자의 회고담을 읽은 적이 있다. 중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야(野)에 묻혀 학문에 정진하면서 모여드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처 마을에서 찾아오는 선비마다 박 모라는 사람을 지목하며 “그 사람 글은 크게 못 배웠어도 행실은 선

비지요. 재산이 요부해서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데도 겸손, 근실하고 더구나 여색에 초연한 것이 그와 비길 사람이 없답니다.”라며 모두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지라 하루는 틈을 내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모처럼의 큰선비 내방이라 박 모가 몸 둘 바를 몰라 하거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많은 사람이 조행을 일컫는데 어찌 그토록 독실하고 여색에 초연할 수 있단 말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박 모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아무 것도 아닌데 모두 과찬들을 하는 겁니다요. 하찮은 일이라 애깃거리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른께서 물으시니 아뢰겠습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았다.

나이 열 여덟 한창 혈기방장한 무렵에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모 댁에 갔었다. 이모 댁에 가 보니 어른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큰댁에 가고 없고 제 또래의 이종 누이동생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날 밤 이모 댁에서 묵는데, 이종 누이동생이 곱게 차려 입고서 술상을 들고 와서 손을 잡을 듯 잔도 권하고 교태도 부리는데, 어느 새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정욕이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이동생이라는 생각에 자제를 했는데, 종단에는 누이동생은 간데없고 요염한 여자로만 보이더군요. 간신히 그 날 밤을 무사히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색의 유혹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요. 그 후로는 여색만 이겨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지요.”

지금으로부터 3백여 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로 옮겨 놓아도 다름이 없을 것 같다. 남자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라 여성의 동기 부여에 금방 들떠 버린다. 요즘 여성의 신체 노출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더 이상이 되면 나체족이 되지 않겠는가. 일부 여대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은 가능한 한 이슬이슬한 옷을 입어야 신세대로 또는 발랄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듯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일부 의상 디자이너의 상업주의적 선동도가 세하고 있고, 거기에다 별의별 담론을 내세우며 부추기는 어중이들도 줄줄이 서 있을 것이다. 제발 대학 사회에서만은 좀 품위를 지켜 주었으면 한다. 허벅지가 허명게 드러나는 팬티인지 바지인지를 입고 강단에서 있는 교·강사나 노랑머리에 가슴이 들여다보이는 옷차림으로 강의실을 듣고 있는 여학생, 그러다가 강단에서도 학생 자리에서도 따르릉! 핸드폰 벨이 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학 강의실의 한 모습이다. 상아탑이나 아카데미이니 하는 말은 어느 때부터인지 희미해져 버리고, 연구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복권, 증권, 벤처 기업, 예로 비디오 얘기로 꽃이 피고 그리고 하루 해가 진다. 성희롱, 성폭행의 추문이 대학에서도 새어나가는 이유를 따져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옛 대학의 기능 중에는 “풍속의 가지런하지 못함을 고르게 한다.(均風俗之不齊)”는 대목이 있었다. 21세기 오늘 현재도 학문의 요람인 대학에서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기풍(氣風)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론도 제공하고 행동하는 지성으로 앞장 서서 모범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는가. **■**

#### 최근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동대학교 유학대학 학장, 성균관 관장, 유교학회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유학사 상연구」, 「논어인간학」, 「이야기 소학」, 「우리의 선비는 이렇게 살았다」외 다수가 있다.